



특집 05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강성희 (명지대학교)

-
- 목 차 »
1. 서 론
 2. 인터넷윤리 교육 개요
 3. 국내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현황
 4.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5. 결 론
-

1. 서 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의 편리와 다양한 혜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 개인정보 오·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 인터넷 언어폭력·사이버 스토킹 등의 사이버 폭력, 컴퓨터 시스템의 불법 침입·파괴, 인터넷 중독 그리고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 등 인터넷 발달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편의 못지않게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권 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 또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피해가 위협적인 수준에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적, 법적, 교육적 해결책 등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의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도 인터넷윤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내 대학에서 인터넷윤리와 관련된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개요와 국내 대학의 인터넷윤리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고하고자 한다.

2. 인터넷윤리 교육 개요

2.1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

인터넷윤리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를 말한다¹¹⁾.

특히 인터넷 자체가 갖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개방성, 비감독성, 급속한 파급성 등의 특징은 인터넷 역기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해결책보다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정효과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한다.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인터넷윤리 의식 함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윤리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임은 분명하므로 학교 교육 등을 통한 교육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인터넷윤리 교육 내용

인터넷윤리 교육의 목표는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피

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윤리 교육 내용은 이런 목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터넷윤리적인 측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법, 기술적인 문제 등이 인터넷윤리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윤리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인터넷의 역사와 발전 배경 및 작동 원리 등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윤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사회, 경제 생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터넷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 사회와 관련된 법을 이해한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유해정보 유통,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해킹과 악성코드 유포 등과 같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을 탐구한다.

여섯째, 정보 공급자로서의 윤리를 인지하고 인터넷 역기능을 대응하기 위한 자세 및 기술 등을 습득한다.

일곱째, 인터넷윤리를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 내용 중 인터넷에 대한 이해는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한 사전 지식에 해당되며, 정보 공급자로서의 윤리와 인터넷윤리 교육 및 상담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3 인터넷윤리 교육 특성

인터넷윤리 교육의 내용면에서 볼 때, 인터넷윤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은 윤리학, 법학, 컴퓨터학, 사회학 등을 아우르는 종합학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윤리 교육은 도덕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지·정의·행동이 통합된 통합적 도덕성 교육을 전제로 한다.

통합적 도덕성 교육이란 토마스 리코나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인격의 구성요소를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으로 보고 세 가지 구성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이 선인 줄 알아야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비로소 선한 사람,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 또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덕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합적 도덕성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0].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서도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나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마음 속 깊숙이 느끼고 해결하려는 강한 의욕을 가져야 하며,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올바른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

따라서 통합적 도덕성이 적용되는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아닌가를 느낄 수 있도록 ‘윤리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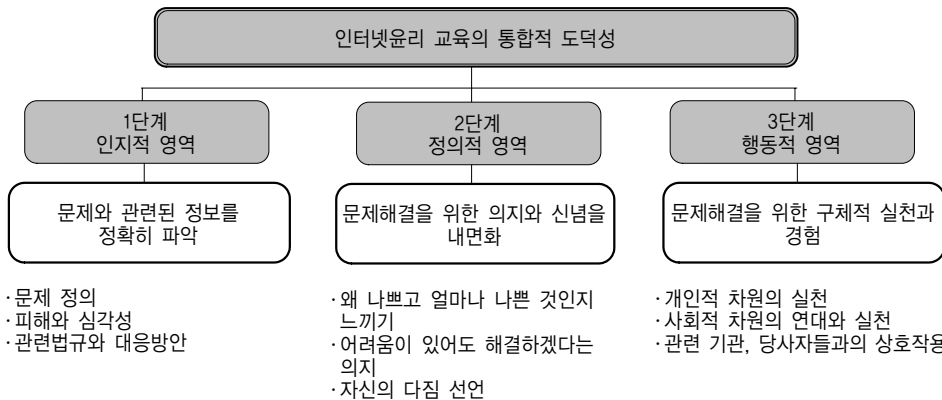
둘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정서적 실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감동과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주어야 한다.

2.4 인터넷윤리 교수 방법

통합적 도덕성 이론이 적용되는 인터넷윤리 교육이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느끼고 행



(그림 1) 인터넷윤리 교육의 통합적 도덕성^[4]

<표 1> 인터넷윤리 교육의 교수법

교수법	교육내용
설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설명 · 수업 중 짧은 시기 동안 이용 · 다른 기술과 병행 · 사실적인 내용 전달에 효과적 · 주제의 소개, 개념의 정의, 내용 복습, 어려운 개념 설명 · 수업 종료 시 이용
시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원리 등을 예시하고 극적으로 제시, 학생들의 지적 기능 발달 · 시범내용의 관찰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의 성취를 강화 ·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 신문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
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 및 활동 학습의 기회 제공 · 토론, 역할놀이, 경진대회 등
탐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의 지식 발견 · 탐색할 주제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탐구 · 교수자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

동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찰이 특히 요구된다.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설명형, 시범형, 팀티칭, 마이크로티칭,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토의, 동료교수법, 발견학습법, 문제해결학습법, 시뮬레이션, 개념지도법, 질문법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인터넷윤리 교육에 적합한 몇 가지 교수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1,3,11}. 실천적 교육으로서 인터넷윤리 교육은 단순 설명형 강의에 의한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하며,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국내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현황

3.1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개설 수 현황

인터넷의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됨에 따

라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히 인터넷의 주 이용자이며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인 대학생 계층에 대한 인터넷윤리 의식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본격화 된 것은 2005년을 전후해서이다. 정보통신부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성균관대, 선문대, 서울여대 등 7개 대학을 중심으로 인터넷윤리 과목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전국적으로 경북대, 서울대, 홍익대, 이화여대, 충주대, 명지대 등 66개 대학(교)이 강좌를 개설하였고 2005년 2학기에는 73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전국 92개 대학(교)에서 인터넷윤리 관련 교과를 개설하게 되었고, 2005년의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관련 교과목 운영은 2005년 73개교에서 2006년 1학기 운영 기준 92개교로 26% 확산된 것이다⁹. 이 시기를 전후로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의 급격한 확산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정보처리학회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교 전용 인터넷윤리 교재의 출간 및 인터넷윤리 워크숍 개최 등 인터넷윤리 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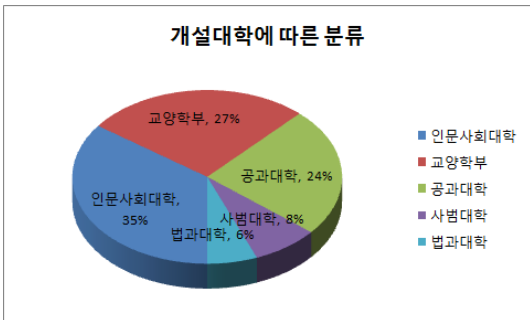
2009년 한국대학총장협회에서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개설을 추진하려는 협정을 맺는 등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대략 120여개 정도의 대학만이 인터넷윤리를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이러한 확산 규모는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요구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비하면 그리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라 사료된다.

3.2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개설 특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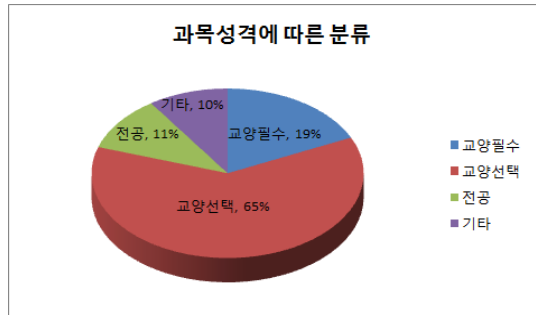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의 개설 특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 게시된 45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윤리 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단과대학을 살펴보면 인문사회대학이 전체의 35%, 교양학부가 27%, 공과대학이 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목 성격상 교양선택이 전체의 64%로 가장 많았고, 교양필수가 19%, 전공이 11%로 나타났다. 다양한 단과대학에서 개설되긴 하지만 많은 경우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교과 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개설 전공에 따른 구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 과목의 대부분의 경우가 교양과목 중 교양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은 개설이 되어 있더라도 교육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설 강좌 중 인터넷윤리를 전체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윤리 전담 교과가 전체의 64%인 반면, 인터넷윤리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목의 경우도 36%로 나타났다. 종합학문적인 특성을 갖는 인터넷윤리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야 하므



(그림 2) 개설 대학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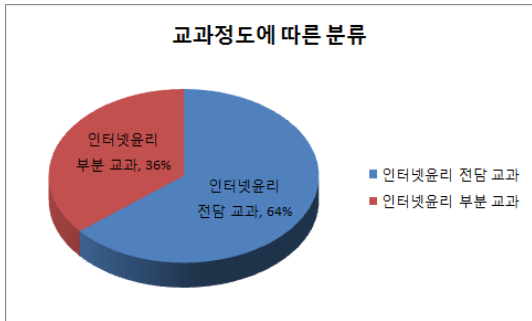


(그림 3) 과목 성격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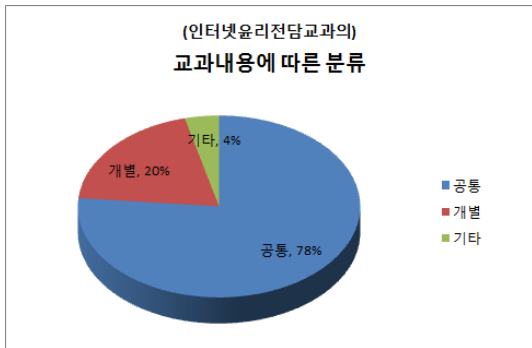
로, 부분적으로 인터넷윤리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윤리 전담 교과 중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는 20% 정도이고, 나머지 76%가 인터넷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대체로 포함하는 교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터넷윤리 전담 교과의 경우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업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내용에 대한 표준화된 방향 제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터넷윤리 교과의 강의시간과 학점을 살펴보면, 3학점이 61%, 2학점이 28%, 1학점이 2%, 기타 9%로 나타났으며, 주당 강의시간은 3시간이 52%, 2시간이 36%, 1시간이 3%, 기타 9%로 나타났다. 3시간 3학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주 1-2시간 수업의 경우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윤리 교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다루기에 시간상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 진행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일부 강좌가 토론 및 실습을 병행하기도 하나 전체 개설강좌의 89%가 설명형의 강의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윤리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법이 타 교과에 비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의 진행 방식의 개선



(그림 4) 교과 정도에 따른 분류



(그림 5) 교과 내용에 따른 분류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¹⁾.

마지막으로 인터넷윤리 교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시험이 전체 6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과제 17%, 출석 13%, 기타 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타과목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윤리 교과에 대한 관련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의식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므로, 시험이라는 평가 방법이 단순 지식의 습득 여부만을 가리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3 대학 인터넷윤리 관련 자격증 활용 현황

인터넷윤리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윤리실

천협의회가 2006년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소양 인증시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 카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 인터넷윤리 과목 수강생들 113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소양 인증시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대학에 적용하여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하였다⁷⁾.

인터넷윤리가 정보화시대의 시민성 교육으로서 필수 소양으로 중요시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인터넷윤리 자격시험의 보급을 위해 국내 국가 공인 IT 자격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중심의 관련 교육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IEQ(인터넷윤리자격: Internet Ethics Qualification)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제 1회 시험을 시작으로 2011년 1,785명, 2012년 6,109명 응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3년 현재 국가 공인 자격 추진 중에 있다¹²⁾.

연령대별 IEQ 응시 현황표¹²⁾를 살펴보면,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20대 층의 자격증 응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에서 IEQ를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인터넷윤리 교양 개설 대학 및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교양을 운영하고 IEQ 자격 취득을 학점과 연계하는 정보윤리 학교 사업을 진행하는 등 IEQ를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표 2〉 연령별 IEQ 응시현황

	2011			2012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0대미만						
10대	1	9	184	6	736	1461
20대	607	26	67	1233	679	57
30대이상	241	82	293	643	217	261

에 활용하는 방안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IEQ가 인터넷윤리 교육과 맞물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IEQ의 국가 공인 자격증 획득 및 자격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적 확대뿐 만이 아니라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자격 취득이 인터넷윤리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보완된 평가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인터넷윤리 교육의 특성과 국내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현황을 통해 국내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양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대학이 인터넷윤리 교과를 개설하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대학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개설된 경우도 교양필수가 아닌 교양선택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교육대상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현 교육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인터넷윤리 교과는 내용의 특성상 윤리학, 법학, 컴퓨터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종합학문적인 특성을 가지며,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므로 우선 교강사의 교수 내용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인터넷윤리 교육 워크숍과 인터넷윤리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교강사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현실적으로는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치와 강사 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내용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와 많은 경우 인터넷윤리를 교과와 일부로 다루고 있거나 시수 부족 등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표준을 따르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목의 시수 문제와 인터넷윤리만을 다루는 전담 과목으로의 개설 등 교과 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 인터넷윤리 교육은 인지, 정의, 행동이 통합된 통합적 도덕성 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과 개념, 이론의 전달이 되어서는 수업을 통해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윤리 교육의 대부분이 단순한 설명형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자의 대상별, 교육 주제별 교수법에 대한 고찰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학회나 연구회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화된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연구와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평가방법은 주로 지식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인터넷윤리 교과에 적합한 평가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 방법으로 IEQ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자격 취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IEQ 개발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제안한 인터넷윤리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자,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정보화 시대를 사는 시민교육으로서 인터넷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인터넷의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도 인터넷윤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내 대학에서 인터넷윤리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전용 인터넷윤리 교재의 출간 및 워크숍 개최, 인터넷윤리 소양 인증시험 운영 등 인터넷윤리 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국내 대학에 개설된 인터넷윤리 교과 현황을 살펴보면 그 규모에서 아직 상당히 미흡하고, 개설 교과의 낮지 않은 비율이 인터넷윤리 전담 교과가 아니거나 시수 부족 등의 문제로 다소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한 지식 전달의 교수법과 지식 여부만을 판단하는 평가 방법 등의 교과 운영 방식은 현재의 인터넷윤리 교육이 인터넷 역기능 예방을 위한 실천적 교육으로서 부족한 면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이 대학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내실화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과 개편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수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및 활용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한 대학,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 문헌

- [1] 강성희,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 인터넷윤리 워크숍(하계), 2008.
- [2] 강성희,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인터넷윤리 워크숍(동계), 2008.
- [3] 강성희,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호, 2013.
- [4] 유민희, 강성희, 정보통신윤리의 통합적 도덕성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한국정보교육학회 학술논문집 제2권 제2호, 2011.
- [5] 이한미디어,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 조사 자료.
- [6]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윤리 Internet Ethics, 이한미디어, 2012.
- [7]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윤리 소양 인증 시험 관련 자료.
- [8] 임상수, 정보윤리교육의 방법론 모색, 한국국민윤리학회 학술지 논문, 2003.
- [9]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 인터넷윤리 관련교과목의 운영 및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006.

- [10] 최경애, 도덕과 교육에서 인격교육론의 의미와 중요성:리코나의 인격교육론을 중심으로,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1] 추병완, 정보윤리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울력, 2001.
- [12] 한국 생산성 본부,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 관련 자료.

저 자 약 력



강 성 희

이메일 : kangsh@mju.ac.kr

-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학사)
-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석사)
-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컴퓨터학과 (박사)
- 2001년~현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 관심분야: 인공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데이터마이닝, 인터넷윤리 교육